

# 현대 도시이론과 언어담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근대 도시이론과 현대 도시이론의 비교를 통해서-

정 인 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주제어 : 현대 도시이론, 근대 도시이론, 언어담론

## 1. 서론 : 언어, 건축, 도시

도시에 대한 탐구는 근대건축에서 그랬던 것처럼, 1960년대 이후 새로운 건축적 경향을 탄생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 건축가들은 근대 건축가들이 제안한 도시이론들에 반발하면서 새로운 도시이론을 추구해 나갔다.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도시의 이미지’, 팀 텐(Team X)의 ‘전이공간’, 알도 로시(Aldo Rossi)의 ‘도시의 건축’,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의 ‘패턴 랭귀지’, 콜린 로우(Colin Rowe)의 ‘콜라주 시티’, 그리고 렘 쿨하스(Rem Koolhaas)의 맨하탄리즘,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의 이벤트-시티 등은 현대 도시이론을 대표하는 예들이고, 이들을 통해 건축가들은 건축을 새롭게 정의하게 된다. 그들은 에벤네제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의 ‘공업도시’,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 루드비히 힐버자이머(Ludwig Hiberseimer)의 ‘기계도시’, 패트릭 애버크롬비(Patrick Abercrombie)의 ‘신도시’ 등으로 이어지는 근대 도시이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고 새로운 이론 체계를 제안하는데, 여기에 언어 담론이 매우 중요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는 1) 1960년대를 경계로 그 전에 제시된 근대 도시이론과 그 후에 제기된 현대도시이론

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교 검토한 다음, 2)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3) 그런 차이점들이 왜 발생했고, 또한 그것이 언어 담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런 시도는 우리 시대의 건축과 도시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도시가 인류 문명을 물질적으로 구현시켜 놓은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의 일부로서 보고, 이들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제적 구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분야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려 한다. 두 번째로 도시를 인간이 만들어놓은 대단히 복잡한 의미체계(semantic system)로 읽고자 한다. 그것은 사회적 관습과 의식을 반영하는 인위적인 구축물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의미들은 지금까지의 도시를 무대로 발생한 ‘사건’들의 총합이 된다. 도시는 그런 사건들을 구조화되고, 사건들이 축적된 텍스트로 이해된다. 이런 태도는 도시를 기능적인 실체로서 상정하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한 경제적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고, 지리적인 공간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다르다. 대신 도시는 자연이나 대지와 같은 실체로부터 파생된 일종의 표면효과로서 이해되고, 이 경우 도시와 언어담론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언어와 도시를 연관시키려 한 주된 이유는, 그것과 관계 짓지 않고서는 현대 도시 이론의 본질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그것을 규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지만, 언어 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대부분 의미 있는 결론을 끄집어 내지 못했다. 또한 많은 글들을 통해 언어담론들이 건축과 도시 분야에 단편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그들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알도 로시는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유형의 개념을 이끌어왔고, 콜린 로우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에서 그의 콜라주 시대의 주된 개념을 끄집어 온다. 반면 램 콜하스는 자크 데리다의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의 도시계획 이론을 도출하였고, 마찬가지로 베르나르 추미는 질 들뢰즈의 사건이란 개념을 건축과 도시의 주요 주제로 채택한다. 단편적으로 보자면 이들은 각기 상이한 이론체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의 생각은 20세기 언어학에서 제안한 언어개념을 중심으로 생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언어 담론을 특징짓는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근대 도시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현대 건축가들이 제기한 다양한 도시이론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언어담론과 언어에 대한 정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계속 사용하게 될 언어담론(Discourse of language)이란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언어담론의 바탕을 형성하는 언어의 속성은 무엇이며, 그리고 언어담론을 도시이론에 도입할 경우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1 언어 담론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언어담론은, 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생성 변형문법과 같은 현대 언어학 일반 ② 문화기호학, 시각예술기호학, 건축기호

학을 포함한 기호학 일반, ③ 언어학에서 파생된 구조주의, ④구조주의를 방법론으로 채택한 인류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들의 이론들 ⑤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철학 ⑥ 후기 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은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이론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현재 인문 사회분야에서는 언어담론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쓰더라도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붙들어 뭉친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어 철학(Philosophy of language)이라는 말이 사용될 수 있으나, 철학 분야에서 이 말은 주로 비트겐슈타인이나 퍼트남과 같은 영미계통의 분석철학자들의 작업을 지칭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언어이론(Theory of language)이란 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언어학에 치우쳐서 포괄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비록 앞서 정의한 언어 담론의 범위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어 모호한 점도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 건축과 관계되는 부분은 그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부르기로 하였다.

### 2.2 언어의 속성과 도시이론

그렇다면 언어 담론은 그 밖의 사유체계와 어떻게 다르며, 실제로 도시이론에 적용되면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언어의 속성부터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언어담론은 근본적으로 언어의 속성을 기반으로 파생된 이론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 지난 100년 넘게 매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대략 네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언어는 대단히 구조 의존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문법체계가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체계는 개인이 쉽게 변경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순수하게 언어나 기호를 상호 소통시키기 위해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약속들이다. 이것은 현실 속에서 실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축가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순수한 상상물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과 상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언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공동된 규약으로 독립된 층위를 결성한다. 우리가

흔히 구조주의라고 부르는 개념이 작동하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이 때문에 언어담론의 주요 이론들 뒤에는 항상 구조주의 혹은 후기 구조주의가 기본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구조주의가 언어 담론에 속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된 방법론으로 작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처럼 언어의 구조의존적인 속성으로부터 발전한 구조주의는 현대 도시이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근대 도시이론이 가지는 기능적이고 단선적이며 위계적인 도시구조를 의미론적이고 다원적이며 네트워크적인 도시구조로 변환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다양한 현상 뒤에 담겨 있는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어서, 구조주의 내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초기 구조주의자들은 구조를, 다양한 현상 이면에 숨어 있는 안정되고 확실한 존재로 상정하였다. 이것은 소쉬르에서 레비스트로스까지, 그리고 현대 도시이론가들인 알도 로시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그리고 콜린 로우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다. 알도 로시가 이야기한 유형(type),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이야기한 패턴(pattern), 콜린 로우가 이야기하는 도시적 맥락(urban context) 등은 초기 구조주의자들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도시적 개념들이다. 알도 로시는 유형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도시라는 실체가 바로 유형에 의해 중재되며, 그것은 실재를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인 장치이다. 이것을 통해 실재를 이해하고 조작하면서, 그것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해준다.”<sup>1)</sup> 라파엘 모네오 역시 “유형이란 건축가가 작품을 시작하는 최초의 출발점으로 구조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sup>2)</sup>

그렇지만 이런 초기 구조주의자들의 생각은 1960년대 이후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질 들뢰즈와 같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텍스트와 담론의 개념을 통해 초기의 구조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서, 그것을 고정되고 확실한 존재 대신에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존재로 상정하

였다. 이 점은 1980년대 이후의 도시이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렘 콜하스, 베르나르 추미는 도시를 텍스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서,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서 제기된 해체, 산종(散種), 중첩, 그리고 사건 등의 개념을 도시이론에 부여한다. 그들은 더 이상 도시를 유형이나 맥락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이런 개념들이 도시적 현실과 장소라는 특수성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많은 건축가들은 도시를 실제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시물라크르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과거 도시와 건축은 구체적으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들을 모든 디자인의 바탕으로 삼았으나, 오늘날 현대 도시와 그 속에 지어진 수많은 고층건물들은 더 이상 자연과 인과적인 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할 도시이론은 안정되고 확정적인 것 대신에 이질성, 불확정성, 우연성, 상호 침투 등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의 생각과 일치한다.

언어 혹은 기호가 가지는 두 번째 속성은, 그것이 실체이기 보다는 형식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모든 문화영역에서 언어 혹은 기호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것은, 현대 문명에서 여러 매체에 의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시되면서, 쉽게 조작가능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 형식화가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존재 그 자체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가시적인 이미지가 보다 중시되는, 형식주의적 경향이 문화 전반에 걸쳐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언어는 시각적인 매체들과 함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도구이기 때문에, 언어를 바탕으로 성립된 언어담론은 이같은 문화현상을 설명해 주는 주요 논거로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현대 도시이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한다. 언어담론에 영향을 받아 현대 도시이론은 기능이나 경제성대신에 도시의 이미지나 형태를 강조하게 된다. 가령 케빈 린치가 제안한 도시의 이미지와 가시성(legibility), 콜린 로우가 제안한 배경-도상(ground-figure)의 관계, 알도 로시의 도시 형태론(urban morphology) 등은 이런 점에서 언어 담론의 형식주의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 속성은 언어가 가지는 ‘시간’ 개념이다.

1) Micha Bandini, Aldo Rossi, in AA Annual, 1981년.

2) Rafael Moneo, Aldo Rossi: The Idea of Architecture and the Modena Cemetery, in Opposition reader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년, 108쪽.

소쉬르는 자신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언어의 속성을 공시대(synchronic)와 통시대(diachronic)로 구분한 다음 이 가운데 공시대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공시태란 시간과 상관없이 특정 시기에서의 언어체계를 연구하는 것이고, 통시태는 시간의 진화 속에서 변화되어 온 언어체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소쉬르가 보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한편으로는 역사적 흐름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언어란 그 구성요소의 순간적인 상태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순수한 가치체계로”<sup>3)</sup>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구분을 통해 소쉬르는 이전에 언어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던 비교 역사적인 방법과는 다른 공시적인 언어학을 새롭게 창시할 수 있었다. 소쉬르의 이런 생각은 언어 담론에 기대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가들, 특히 미셸 푸코, 루이 알튀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역사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현대 도시이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근대 도시이론은 기원과 종말, 그리고 시대정신이라는 역사주의적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대 도시이론은 언어가 가지는 이런 공시적인 시간개념을 가지고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려고 한다. 역사주의와 고고학, 이것은 근대와 현대의 도시이론을 구분 짓는 중요한 경계선이다. 네 번째로 소쉬르가 밝혀낸 중요한 언어의 속성은, 언어가 동일한 의미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의적이고 차이나는 관계를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 즉, 의미를 발생시키는 언어적 요소들은 그것 자체의 명료한 동일성에 의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을 차이 나게 만드는 구조 혹은 관계망에 의해서 그 의미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과 사물과의 자연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의미는 철저히 인위적인 관계망에 의해 발생됨을 의미한다. 데리다는 언어가 가지는 이런 차이성과 자의성을 차연(différance, 差延)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욱 확장시킨다. 그는 언어가 차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의미를 연기시킨다고 보았다. 이 경우 현존과 동일성을 전제로 정의된 서구 철학은 그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렇다면 언어가 가지는 이런 자의성과 차이성은 1960년대 이후 여러 도시이론을 발생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대략 세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콜린 로우의 맥락주의(contextualism)와 정확하게 연결된다. 여기서 개별 건축이 가지는 가치는 그 자체의 동일성(근대건축가들은 이것을 objet-type라고 불렀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시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각기 도시적 맥락에 걸려 있는 차별화된 행위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로 건축과 도시를 자율적인 실체로 바라보면서, 근대 도시이론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 공간개념 대신에 장소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은 더 이상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 받지 못하고, 대신 도시는 각각의 개별적이고 차이나는 장소에서 그 출발점을 삼게 된다. 도시가 위치하게 될 각각의 장소는 사건들이 새겨져 있는 흔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의 의미를 반영하려 한 것이다. 세 번째로 그것은 도시를 현존, 실재,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이탈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지시성이 거세된 자기-지시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후기 구조주의자들에게 의미는 언어의 배후 혹은 외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자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경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도시는 모든 것이 인위적인 것에 의해 조절되고, 따라서 도시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성해 나가게 된다. 이런 생각과 관련하여 옹어스의 최근 주장은 이런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현대도시는 공항과 같다. 더 이상 도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시자체는 정거장 속으로 용해되거나, 우연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머무르기 위한 광장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의 연속성은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된다. 지속성, 전통, 영속성 등에 의해 특징 지워졌던 장소는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정보체계로 용해되어 진다. 장소 대신에 네트워크 상에 교차점으로 등장하여 여기서 임의의 정보가 짧은 시간에 만나게 된다.”<sup>4)</sup>

### 3. 근대와 현대 도시이론의 비교연구

3)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16쪽.

4) Oswald M. Ungers, Stefan Vieths, Die Dialektische Stadt, Vieweg & Sohn Verlagsgesellschaft mbH, 1999년.

앞서 우리는 언어의 네 가지 속성을 살펴보았는데, 현대 도시이론가들은 바로 이런 언어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근대 도시이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도시이론을 제안하였다. 이런 변화를 요약해보면, 기능주의로부터 형식주의로, 역사주의로부터 고고학으로, 공간으로부터 장소로, 위계적 관계부터 네트워크적 관계로 이행이라는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현대 도시가 언어담론에서 주장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근대 도시이론과 현대 도시이론을 비교해 보겠다.

### 3.1 기능주의로부터 형식주의로

근대와 현대의 도시이론을 비교해 볼 경우, 우리는 도시를 계획하는 기준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근대 건축가들에게 도시계획을 발생시키는 주요 기준은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데 있었다면, 현대 건축가들은 이미 지어져 있는 도시의 형태, 외관, 가시성, 즉 형식 기호에서 도시 계획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근대와 현대의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가로 지르는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지난 50년간 도시를 바라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근대 건축가들이 제안한 근대 도시이론의 근거에는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는 소박한 슬로건이 담겨 있다. 그들에게 “도시의 형태는 단지 사용상의 필요와 기술이 동반되는 논리적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생물학적 연장물로 인식되고, 이런 생물학적 결정론은 기능과 과학기술을 정당화시킨다.”<sup>5)</sup>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작동시키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가정한다. 먼저 이상화된 도시모형은 마치 유토피아처럼 기존의 도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 가정되었다. 이런 가정이 없다면 그 속에 담긴 새로운 기능들은 그 역동적인 추동력을 얻지 못한다. 두 번째로 하나의 결정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도시 기능들을

가정하고서, 그들을 하나의 일관된 프로세스 내로 통합하였다. 도시 형태는 그 프로세스의 최종적인 결과물에 의해 결정된다. 도시는 철저히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투명한 기능들로 분절되고, 그렇게 분절된 도시 기능들은 최소한의 주거단위부터 거대한 메트로폴리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연속된 흐름을 갖도록 한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자동차가 가장 작은 나사에서부터 가장 큰 부품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작업공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세 번째로 이런 프로세스를 실현시키기 위해 근대건축가들은 엄격한 기하학에 근거한 동질한 공간을 가정하게 된다. 루드비히 힐버자이머가 제안한 도시이론은 이런 생각을 대변한다. 그가 1928년에 쓴 <대도시건축(Großstadtarchitektur)>이라는 책에서 도시를 철저한 기능으로 파악하는 기계도시로 간주하였다. “대도시는 집중화된 자원을 창출하는 곳으로 익명적이며, 매우 강렬한 삶의 리듬으로 인해 모든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는 곳이다. 그래서 거대도시에서의 친근함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 주거단지를 산개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대신 자본주의적 합리화 과정의 정점에 위치하는 ‘기계도시’를 제안하고자 한다.”<sup>6)</sup>

근대 도시이론에 대한 최초의 반론은 케빈 린치가 1960년에 출간한 <도시의 이미지(The Image of City)>에서 나타난다. 이 책은 근대 도시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도시를 바라본 최초의 책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도시를 기능이나 논리적 프로세스의 일부로서가 아닌 패턴과 유형으로,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런 생각은 근대 도시이론과는 전혀 다른 반면, 현대 도시이론의 맥락과는 전적으로 부합한다. 그렇다고 이 책의 텍스트 상에서 언어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어떤 암시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케빈 린치는 보스턴, 로스엔젤레스, 뉴저지, 피렌체와 같은 기존의 서구 도시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거기서 공유하고 있는 개념들을 끄집어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언어담론을 수용한 다른 도시이론과 매우 유사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도시를 더 이상 기능이나 경제성이 아닌 경관의 가시성과 구조로 바라본다

5) Alan Colquhoun, *Typology and Design Method, in Meaning in Architecture*(edit. by Charles Jencks and George Baird, Barries & Jenkins), 269쪽.

6) 다음의 글에서 재인용. Manfredo Tafuri, Francesco Dal Co, *Architecture contemporaine*, Berger-Levrault, 186쪽.

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책이 발간된 후 수 십년 동안 많은 건축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를 더 이상 기능이 아닌 형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새로운 도시의 건설보다는 기존의 도시 내에서 의사소통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엄격한 조닝과 획일적인 건물들, 그리고 기능적인 도로체계에 의해 유기적인 면모를 잃어버린 근대도시를 서로 소통시키고 통합시켜서 도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거주지로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형식적인 가치가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것은 도시를 계획하는 기준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인지되는 심리적이고 의미론적 가치에 의해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린치의 책에는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의 입장에서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 사용자의 입장으로 바뀐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롤랑 바르트나 자크 데리다가 저자(author)가 아닌 독자(reader)의 입장에서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서 읽으려는 것과 매우 유사한 태도이다. 근대 도시 이론이 새로운 도시의 창조자로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면, 린치의 그것은 일상적으로 도시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도시를 만드는 입장(generator)에서 건축가들은 도시를 매우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통해 도출된 이상적 모델들을 가지고 기존의 도시를 완전히 변모시키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그것을 위해 도시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혀 생소한 건물들을 집어넣는 혁명적인 발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도시를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좋은 점들을 강조하되, 기존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 경우 도시에 부여하는 가치도 달라진다. 명확하게 읽혀지도록 가시성과 이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도시의 형태와 역사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도시는 그 물리적 구조 안에 담겨진 과거와 현재 전체로서 고려되었다. 린치의 경우, 근대 도시이론처럼 효율성이나 기능성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매우 중시한다. 그는 “도시가 그 자체로 복잡한 사회의 강력한 상징이며, 만일 시각적으로 잘 디자인되어 있을 경우, 그것은 강력한 표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sup>7)</sup>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을 도시 경관의 가시성(legibility)에서 찾으면서, 도시의 형태와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린치의 생각은 도시를 형식과 의미체계로 바라보려 한 최초의 시도로 인정받을 만하고, 근대도시가 가져다준 냉혹함과 익명성, 그리고 기존 질서와의 충돌로 인해 야기된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도시를 새롭게 보는 시각을 열어 놓는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시각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케빈 린치에게 아름다운 도시는 쉽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도시이다. 여기서 쉽게 명료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도시 내 요소들이 마치 정확하게 분절된 언어처럼 쉽게 식별 가능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성하는 전체 패턴, 즉 환경적 이미지(environmental image)가 뚜렷하게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관찰자와 외부 세계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sup>8)</sup> 이것은 근대건축가들이 추구한 기능적이고 위생적이며 녹지가 풍부한 도시와는 다른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도시의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 요소, 즉 정체성(identity), 구조(structure), 의미(meaning)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뛰어난 도시 이미지는 먼저 독립된 실체로서 다른 것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오브제를 필요로 하고, 이어 그 오브제가 다른 것들과 연관되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나 패턴이 관찰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현대의 도시이론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를 기능이 아닌 형식과 의미체계로 바라보는 생각은, 알도 로시가 쓴 <도시의 건축>에서

7)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년, 5 쪽.

8) 앞의 책, 4쪽

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근대건축을 특징짓는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즉, 그가 오래 된 도시를 깊이 있게 관찰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존재하는 주요 건물들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기능이 바뀌면서 결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건물형태에 맞춰 기능들이 적응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로시는 유고슬라비아의 스피릿(Split)이라는 도시를 예로 든다.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건설한 성벽 내에서 성장해온 이 도시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형태들 내로 새로운 용도와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것이 도시건축이 지닌 의미의 상징성이다. 이 도시의 특이한 형태는 그 자체의 개별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집합적인 사건들의 기록이며 기호이다.”<sup>9)</sup> 이런 생각은 근대건축가들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현대건축가들에게 도시의 문제는 더 이상 기능의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을 담고 있는 형태의 고고학적이고 의미론적인 구조에 묶여 있는 대상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 형태는 기능과는 상관없이 자율성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형성 논리를 갖게 된다. 이 시점에서 도시 형태론(Urban Morphology)의 탄생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1980년대 이후의 자기 생성적인 도시이론을 예견하고 있다.

알도 로시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구조주의 언어학을 받아들인다. 그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도시는 고고학적 기호들과 자율적인 구조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도시는 그 지속성(permanence)을 부여 받는다고 본다. 그것은 도시의 역사를 기능적인 관점으로만 파악하려는 근대 건축가들과는 분명히 상반된 태도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도시를 언어와 연결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로시는 그의 <도시의 건축> 서두에서, “도시연구에서 지속적인 요소들은 언어학에서 고정된 구조와 비교될 수 있다. 도시와 언어는 너무나 유사해 보인다. 무엇보다 그 변화과정과 지속성의 복합성에서 그렇다. 그래서 나는 소쉬르가 언어학에서 규명한 점들이 도시과학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sup>10)</sup>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

거지에 남겨진 흔적들의 변화들은 일상 삶의 기호가 된다. 그들은 고고학적인 층위를 가진다.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도 영원한 삶의 바탕조직으로, 불변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건축적 원칙들을 통해 표현되는, 집합적 의지의 기호인 기념비는 도시 동력학에서 하나의 고정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의 법칙들과 그들의 변형은 이렇게 인간 창조의 구조를 형성한다.”<sup>11)</sup>

케빈 린치나 알도 로시처럼, 콜린 로우 역시 도시의 중요한 가치로서 근대건축가들이 제기한 혁명적인 변화 대신에 역사적 연속성을 중시했다. 특히 그가 근대건축을 비판한 것은 바로 과거의 도시조직을 모두 밀어버리고, 전혀 이질적인 ‘고립된 오브제’로서 도시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배경과 도상의 관계로 이루어지던 도시조직을 파괴시켜, 결과적으로 도시를 시지각적으로 매우 무질서하게 만든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그는 지각 심리학의 주요 이론인 배경-도상(ground-figure)의 이론을 가지고 근대 도시이론을 비판하였다. 이것은 언어담론에서 언어 자체의 동일성 보다는 언어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 것과 같은 차원에서 도시를 바라 본 것으로, 그의 이런 시도는 맥락주의란 이름으로 현대 건축과 도시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가 쓴 <콜라주 시티>에 따르면, 근대 도시이론이 가지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도시가 각기 분리된 오브제와 오브제 사이의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도시형태가 전통적인 도시와 완전히 거꾸로 구성된다. 그들은 바탕-형상(ground-figure)으로 나타나는 계슈탈트 도상을 반대로 읽은 것처럼 보인다. 명백한 결합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도시들은 연속적인 매트릭스나 조직체로 되어 있어서 그들 상호간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으며, 가로와 광장과 같은 공간들을 통해 사람들은 도시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시조직을 매우 다양하게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대 도시는 단지 단일한 오브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즉, 오브제나 건축의 형상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배경이나 장이 필요로 하고, 그같은 장의 인식은 모든 지각 체험의 선결조건이다. 어떤 형상이 인식가능한 지각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파괴

9) Peter Eisenman, Introduction in Architecture of the City(Aldo Rossi), MIT Press, 1982년, 7쪽

10) Aldo Rossi, Architecture of the City, MIT Press, 1982년, 23쪽.

11) 앞의 책.

적인 것이 되고 만다. 근대 도시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가 그토록 황량하면서도 메말라 보이는 것이 바로 시각을 위해 필요한 배경이나 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다. 점차적으로 전통도시가 사라지고 있지만, 근대건축의 가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의 형태가 더욱 빈약해져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콜린 로우는 전통도시와 현대도시가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존하기를 제안하게 된다. 이것이 그가 제안한 <콜라주 시티>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콜라주와 충돌과 같은 2차원적인 구성전략을 통해 근대 도시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케빈 린치, 알도 로시, 콜린 로우의 도시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형식주의적 경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현대 도시이론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3.2 역사주의로부터 고고학으로

현대 도시이론은 근대 도시이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주의를 공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 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역사주의는 무엇이고, 그것은 건축과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가? 역사주의(historicism)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역사 개념으로 귀속시키는데,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그것이 표상, 주체 개념과 함께 근대 서구철학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근대 이후 생겨난 시간개념으로, 역사가 기원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진화해 나간다는 근대의 시간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근대 건축가들 역시 철저히 역사주의의 관점에서 건축과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에 비해 1960년대 이후의 현대 건축가들은 역사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고고학적 관점에서 과거만을 바라본다. 이 점이 이들을 가르는 중요한 경계점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들은 어떻게 서로 구분되는가?

헤겔은 역사주의를 공식화한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만일 정신적인 것이 실질적인 세계이고, 물리적인 것이 거기에 종속된다면, 그리고 동시에 역사가 이성적이어야 한다면, 인간의 열정,

의지, 구축은 모두 역사가 설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세계정신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한다. 고프리치는 헤겔의 역사 개념이 예술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것을 세 가지로 규정할 바 있는데, 이것은 근대건축과 도시에서 등장하는 역사주의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 그가 이야기한 첫 번째 특징은, 헤겔이 모든 예술 작품에서 초월적 가치가 표현된다는 점을 믿었다. 그것은 예술작품이 더 이상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이기 보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근대건축가가 바로 미스 반 데어 로에이다. 그는 “건축예술이란 공간적으로 파악되는 시대의지이다(Baukunst ist immer raumgefaßter Zeitwille)”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그는 “역사상에 등장한 수많은 건축물들이 시대의지의 도구가 되었을 때 건축예술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들은 현실적 목적을 위해 봉사해 왔고, 그 목적은 건축에 결정적이었다<sup>12)</sup>”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기술 문명이야말로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을 반영한 건축이야말로 필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미스가 근대건축의 존재기반에 대해 오랜 성찰한 끝에 이끌어낸 결론이었고, 그런 생각은 근대건축가들이 가졌던 역사주의적 태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고프리치는 이같은 태도를 미적인 초월주의라고 불렀다. 두 번째는 역사적 집합주의(Historical collectivism)인데, 가령 그리스 예술은 개별적인 예술가의 작품이기 보다는 그리스라는 집단정신의 표현이고 반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고프리치는 헤겔 역사철학의 핵심으로 바로 역사적 결정론을 꼽았다. 이것은 역사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역사의 모든 과정이 필연적인 발전을 따르므로 거기에는 어떤 우연이나 불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 시대정신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sup>13)</sup> 이런 생각은 곧 역사의 기원과 종말이라는 생각을 가정하게 되고, 그것은 계몽시대 이후의 유토피아 개념과 결합한다. 산텔리아를 비롯하여 르 꼬르뷔제에 이르기까지 근대건축가들이 제안한 여러 개의 이상적인 도시계획안들은 근본적으로 역사 결

12) Mies van der Rohe, *Baukunst und Zeitwille*, in *Artless World*(Fritz Neumeier), MIT Press, 1991년, 295쪽.

13) Ernest Gombrich, 'Hegel and Art History', in *On the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 *Architectural Design*, 1981년 6/7월, 51호, 3-7쪽



정론에 입각해 있다. 그들이 제안한 도시모형은 과학과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도시이고, 모든 과거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이며, 테크놀러지는 이상도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이런 도시의 건설을 위해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 대상이 된다. 르 꼬르뷔제가 기존의 모든 도시조직을 제거해 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역사관을 배경에 깔고 있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역사는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역사의 발전을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타자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타자를 철저히 분쇄시키려는 파시즘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2차 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참사를 겪은 이후 근대 프로젝트가 제안한 역사주의는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고의로 근대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허구로서, 그로 인해 수많은 인간들이 억압되고 결국은 대량 학살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주요 철학적 과제는 바로 역사주의를 폐지시키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칼 포퍼는 그 중심에서 서 있는 인물이다. 그가 파악하는 역사주의란 역사가 그 자체에 내재하는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진보하며 그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회 과학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역사주의는 역사에는 불변의 실체, 또는 본질이 있으며 이 실체가 자기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 역사이며, 그 과정에서 실체의 원리는 다양한 형태로 현상하며, 그 현상의 배후에는 그것을 깨뜨리는 본질로서의 원리 또는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역사주의에서 대표적인 것이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의 사상이다. 포퍼에 따르면 이들의 사상에는 전체론(holism), 역사법칙론, 유토피아주의 등이 공통으로 들어 있다. 따라서 포퍼의 역사주의 비판은 이 세 가지를 비판하는 것에 집중된다.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 역시 역사주의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런 생각의 근거를 대부분 공식적인 언어이론으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철학자인 미셸 푸코는 전통적인 역사해석이, 역사의 목적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의 진보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에 연속적인 인과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현상들 사이에 등질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이런 상이한 계열들을 유일한 중심(원리, 의미작용, 정신, 세계관)으로 복속시키려고 한다고 본다. 그러나 미셸 푸코는 이런 중심화에 반대한다. 대신 그런 계열들을 공간 속에 분산시키기를 원한다. 이 경우 서로 병치하기도 하고, 연속되기도 하고, 포개지며, 단절되는 상이한 계열들의 개별화를 가져온다. 또 푸코는 역사가 하나의 시원(始原)을 가진 진화의 연속적인 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역사란 불연속적이고 탈중심화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언어 담론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건축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현대 도시이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케빈 린치는 근대건축가들이 제안한 도시이론들이 도시를 통해 일종의 유토피아적 세계를 제안하고 있다. 에베네제 하워드의 전원도시, 토니 가르니에의 공업도시, 산텔레아의 신도시, 르 꼬르뷔제의 빛나는 도시 등은 실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상의 대지에 전혀 새로운 도시모형을 제안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맞춰 도시의 적정인구를 비롯하여, 교통방식, 토지이용방법, 건물유형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유토피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케빈 린치는 유토피아는 시대에 뒤진 사상이라고 반대하였다. “그것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결정론적이며, 물리적이고 건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말 그대로의 ‘존재하지 않는 곳’(non place)을 뜻한다. 그들의 유토피아는 현실을 이끌어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고, 아주 편협된 부분만을 지향하고 있다”<sup>14)</sup>. 대신 그는 기존의 도시를 바탕으로 거기서 도시이론을 도출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의 도시이론은 새로운 도시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현상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유형화시켜서 매우 명료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근대건축가들의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앞으로 전개될 모든 도시 이론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칼 포퍼에 많은 영향을 받은 콜린 로우 역시 근대 도시이론이 계몽시대 이후의 서구인들의 역사이론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먼저 “뉴턴의 합리주의에 의해 추진되었다. 물질세계가 의심의 여지없이 설명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험

14) Kevin Lynch, *Quality in City Design*, 1966년

과 관찰에 의해 증명될 수 있고 이 세계가 측정 가능하다면, 모든 형이상학과 미신의 그림자를 배제한 채 순수한 이상도시를 계획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sup>15)</sup> 그렇지만 문제는 근대 서구인들은 이 같은 이상적인 프로젝트들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허구들을 꾸며낸 데 있다.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인간에게서 모든 문화적인 오염과 사회적 부패가 거세되어야 하고, 이 경우 타락 이전의 영점(zero degree)에 해당하는 인간을 가질할 필요가 있었다. 18세기 계몽시대에 고귀한 야만인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토피아와 아카디아의 신화를 결합되는 것을 본다. 이 두 가지 신화는 서로 모순되지만 결합된다. 하나는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하나는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한다.”<sup>16)</sup> 근대 프로젝트는 기원에서부터 종말까지 선형적으로 진보해 나간다는 허구를 가정하고, 이것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역동성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근대건축가들도 인공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완전무결한 자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상적인 도시공간의 형성으로 진보해 나간다고 보고, 과밀하고 오염으로 가득 찬 기존의 도시공간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유토피아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콜린 로우가 보기에 이성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니체가 이야기 했듯이 “진리란 결코 끝나지 않는 은유와 환유, 그리고 도상들의 계열일 뿐이기 때문이다.”<sup>17)</sup> 따라서 이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유토피아는 명백히 한계를 가지며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않는다. 근대건축가들에 의해 건설된 신도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역사주의를 근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라고 간주할 경우, 그렇다면 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안한 철학자는 바로 미셸 푸코였다. 그는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하나는 유토피아를 헤테로토피아로 대체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주의를 고

고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근대 건축가들이 상정한 유토피아는 소멸되어야 하고, 대신 헤테로토피아<sup>18)</sup>가 그 자리를 매우게 된다고 보았다. 미셸 푸코는 18세기 이후 다양한 권력들이 배열되어 있는 담론의 공간을 정의하면서 유토피아의 공간과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을 가정한데, 푸코는 이 가운데 유토피아의 개념이 근대를 특징짓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이며 신화라고 생각한다. 대신 그는 우리의 사회가 헤테로토피아로 특징 지워진다고 생각한다.<sup>19)</sup> 그러면서 그것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에 비해 혼란스럽다. 유토피아가 선형적으로 배열되어서 매우 명료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는 담론이나 말의 의미를 분쇄시키고 해체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의 기원을 반대하고, 선형적인 인과성을 피하면서, 힘의 복수성을 가정한다. “그리고 하나의 실제 공간에서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간들이 공존하도록 하는 힘을 가진다.”<sup>20)</sup> 현대 도시이론가들은 근대도시이론에서 제기한 단선적인 유토피아를 거부하고, 이질적이고 혼란스러운 도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론은 푸코가 이야기한 헤테로토피아와 일치한다.

고고학적 방법론은 이런 생각을 보다 정교하게 확장시켜 놓은 것이다. 푸코는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근대 철학이 만들어 놓은 인간 주체의 개념을 제거하고 대신, 담론의 장(discursive space)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탐구하게 된다.<sup>21)</sup> <지식의 고고학>의 마지막 장에서 푸코는 이 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고고학의 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푸코의 고고학은 역사를 담론적인 사건들로 가득찬 불연속적인 하나의 장(場)으로 본다. 그리고 그 장은 언표(言標)계열들

15) Colin Rowe, Fred Koetter, Collage City, MIT Press, 20쪽.

16) 앞의 책.

17)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Peter Eisenman, The End of The Classical : The End of the Beginning, The End of the End, i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ed. by K. Michael Hays), Columbia Books of Architecture, 1998년, 527쪽.

18) 이 말은 푸코가 유토피아와의 유비를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utopia는 원래 희랍어로 ‘없는 것’을 가리키는 ‘ou’와 ‘장소’를 가리키는 ‘topos’에서 유래된 말이다. hétérotopia는 ‘ou’ 대신에 ‘다른 성정의 것을 포함하는 것’의 뜻을 나타내는 hétéroclife의 hétéro가 쓰여진 것으로, ‘그것 내부에 얼마간의 다른 성질을 포함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19) Michel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14쪽.

20) 앞의 책.

21) Gary Gutting, Michel Foucault’s archeology of scientific rea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년, 244쪽

로 표현되는 그 무엇이다. 고고학은 이렇게 다양한 담론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질서로 실천되며, 그것이 어떤 계열을 이루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미셸 푸코는 역사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표들의 계열을<sup>22)</sup> 정확히 구축해 낼 때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 “그 계열들의 각 요소들을 정의하고, 그 경계선을 고정시키고, 각 요소들의 특이한 유형적 관계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상이한 계열들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계열들의 계열, 혹은 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sup>23)</sup> 여기서 복수화된 층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언표들의 존재조건이 드러난다고 본다. 푸코는 그것을 역사분석의 기본요소를 받아들인다. 그런 점에서 고고학은 역사주의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방법이다. 또한 그것은 역사주의에서 중시했던 기원과 주체의 개념을 거부한다. 푸코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지성사에서 가장 일차적인 관심은 누가 그런 사유를 최초로 창안했고, 누가 그것을 반복시켰으며, 누가 그것을 창조적으로 수정시켰느냐는 것이다. 거기서 그러나 고고학적인 방법은 “이런 독창성/진부함이라는 이원적인 구분과는 관계없다.”<sup>24)</sup> 대신 고고학자는 담론적인 실천의 규칙성, 즉 언표에서 나타나는 규칙성만 관심이 있다. 이 경우 개인의 독창성은 담론적 규칙성에 의해 발생하는 부차적인 결과물로 이해된다.

과거를 고고학적으로 바라볼 경우, 역사주의가 가지는 선형적이고 단선적인 사유대신에 불연속적이고 복합적인 사유가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다양한 사건들을 몇 가지 중심원리로 복속시키는 대신에 다양한 담론의 장속에 분산시키게 된다. 근대 도시이론이 가지는 역사주의를 비판한 건축가들은 공통적으로 고고학을 주요 개념으로 채택하

게 된다. 콜린 로우는 푸코의 고고학적 개념들을 콜라주 시티(Collage City)로, 알도 로시는 유비적인 도시(The Analogous City)로, 램 콜하스는 맨 하타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콜린 로우는 도시와 건축을 전체 맥락 내에서 매달려 있는 기호와 의미로 바라보면서, 도시가 발생시키는 의미의 복수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통도시와 근대도시가 공존하는 콜라주된 도시를 제안하였다. 이런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는 레비-스트로스가 제안한 ‘손재주꾼(bricoleur)’의 개념을 끌어들었다. 이것은 현대 문명과는 완전히 유리된 채 원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인류학이 가지는 주요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즉, 원시인들은 근대 서구인들처럼 미리 예정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위의 자연이나 문화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우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면서 나름대로 치밀한 사회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형성된 구조는 경험적 실체와는 상관없는 자율적인 면을 가지면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내적 일관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언어에서의 문법체계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신화는 그런 구조를 대변한다.

레비-스트로스는 손재주꾼과 엔지니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즉, 엔지니어는 이미 그 목적이 정해놓고서 개념을 가지고 작업하는 반면, 손재주꾼은 삶 속에서 주어진 매우 우연적이고 자의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두 집합, 즉 개념과 기호는 자연과 문화라는 대립의 축에서 양끝에 있다. 기호와 개념이 대립하는 점 중의 하나는 개념이 현실을 전적으로 반영하려 한 반면, 기호는 문화적 요소의 개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sup>25)</sup> “또 과학은 우연과 필연의 구분 위에 기초하며, 사건과 구조를 구별지으려 한다. 과학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과학적 가설과 이론적 구조에 힘입어 그 수단과 성과를 사건의 형태로 만들어낸다. 그렇지만 과학은 우리가 살면서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과 유리되어 있고, 모든 사건들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sup>26)</sup>

22) 계열의 개념은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에 의해 생성되었고, 라이프 니츠에 의해 발전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구조주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구조주의가 탐구하는 상징적 차원의 요소들은 항상 계열을 이룸으로써 작동한다. 이들 계열들은 서로 불연속을 이루며 따라서 단일한 존재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Michel Foucault, L'archéologie du savoir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민음사, 18-9쪽>에 나타나는 이정우의 해설 참조.

23) Michel Foucault, L'archéologie du savoir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민음사, 28-9쪽.

24) 앞의 책, 144쪽

25) 앞의 책, 71쪽.

26) 앞의 책.

이 점 때문에 레비-스트로스는 과학만으로는 우리의 삶과 생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여기서 신화가 가지는 문화적 요소가 왜 필요한가가 잘 설명된다.

콜린 로우는 근대 도시이론들이 철저히 과학자의 태도로써 예정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과학적 건설과 이론적 구조를 통해 도시를 건설하려 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레비-스트로스와 마찬가지로 콜린 로우도 도시는 단지 과학적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없고, 거기에는 신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동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콜린 로우는 이런 사실이 오래된 도시들을 관찰할 경우 잘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로마는 그런 생각을 확신시켜 주었다. 거기서 비교적 규칙적인 형태의 건물들은 도시적 맥락에 맞춰 불규칙하게 뒤섞여 있다. “광장과 저택들은 자주 충돌을 일으키고, 기존의 주거와 수입된 건축들이 혼재되어 있다. 여기서는 폐쇄된 구성과 임시재료 사이에 조합이 일어나고, 동시에 경험적인 맥락들과 이상적 형태 사이의 변증법이 일어나는 곳이다. 로마는 상호의존성, 독립성, 그리고 다중적인 침투성이라는 조건 하에 포럼과 온천의 흔적이 널려 있는 곳이다. 여기서는 갈라진 파편들과 그들의 충돌하는 장이 가장 잘 예시되어 브리콜라주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sup>27)</sup> 이것은 근본적으로 근대건축가들이 제안한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도시공간과는 다른 것이다.

콜린 로우와 마찬가지로 알도 로시는 도시를 바라 보면서 역사주의 대신에 역사와 직접 마주 대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역사는 그 결과와 사실들에 집중하는 반면, 역사주의는 그 원인과 기원을 다룬다. 로시가 도시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는 도시의 기억들을 담고 있는 역사의 결과물을 다룬다. 이 경우 도시는 시간의 기록이며 동시에 사건의 기록이다.”<sup>28)</sup> 이제 건축가들은 “더 이상 건축을 무엇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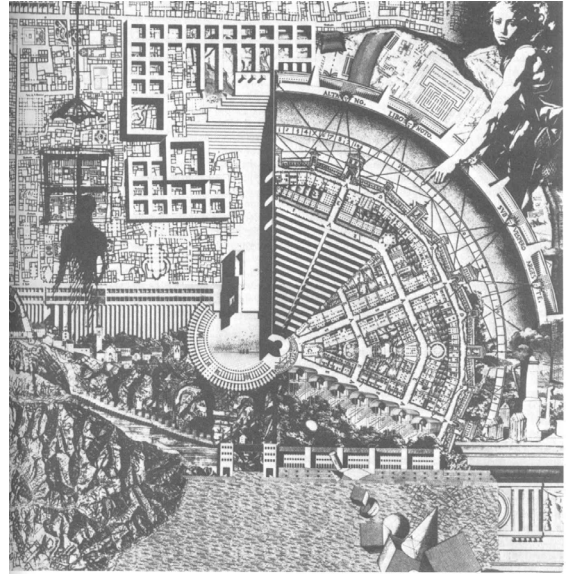


그림 1 알도 로시의 유비적인 도시

서,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여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재발견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sup>29)</sup> 이 경우 도시는 새로운 도시이론의 실험장이기보다는 그 자체로 중성적인 사실로서 등장하고, 건축가들은 거기서 나타난 사실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건축가들은 거기서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사실들을 통해 특정 도시를 그것답게 만드는 일종의 규칙성을 발견하려 했고, 그것을 새롭게 설계할 건축 속에 반영시키려 했다. 여기서 건축유형학이 등장하게 된다.

알도 로시는 ‘유비적인 도시’라는 도판을 통해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명확히 표현하려 하였다. 그것은 197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제시된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 도시, 건축, 조각들이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인 형태로 뒤섞여 있다. 이것은 형태와 스케일, 그리고 구성 방식에 있어 무언가 하나로 수렴되기 보다는 다양성과 이질성으로 계속해서 발산하는 특징을 가진다. 로시는 근대건축가들이 제안한 것처럼 도시를 끝이 닫혀 있는 하나의 유토피아로 상정하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계열들이 공간 속에 분산되기를

27) Colin Rowe, 앞의 책.

28) Peter Eisenman, Introduction in Architecture of the City(Aldo Rossi), MIT Press, 1982년, 7쪽

29) 이 글은 다음의 책에 담겨 있다. Fritz Neumeyer, Oswald Mathias Ungers, Architektur 1951-1990(건축이념과 작품론, 진경돈 외 옮김), 미건사, 232쪽.

원하였다. 거기에는 기존의 도시 평면도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계획안과 기하학적 형태들이 공존해 있다. 그것은 일종의 탈 중심화이다. 이 경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질적인 파편들이 서로 병치하기도 하고, 연속되기도 하고, 포개지며, 단절되는 상이한 계열들의 개별화를 가져온다. 푸코가 이야기한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을 경우 아마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 구성아래 로시는 '이것은 도시가 아니다 (Ceci nest pas une ville)'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르네 마그리트(Renee Magritte)가 그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une pipe)'처럼 표현의 미끄러짐을 산출하여 다중적인 의미를 발생시키려 하였다. 이것은 건축가의 도시계획안이 현실적이지도 또한 이상적이지도 않는, 마그리트의 그림이 일종의 게임처럼 끊임없이 기호들의 의미를 차연시키는 것처럼, 단지 기호화된 도시형태의 모호함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로시의 시도는 이미 그전에 피라네시에 의해 이미 행해진 것이기도 하다. 피라네시는 몇몇 드로잉들을 통해 독특한 공간의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주체의 위치 변화는 전체 디자인을 자신의 여정과 위치로 재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용되었다.

램 콜하스가 뉴욕 맨하탄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 형성된 거대도시를 고고학적으로 읽으려는 시도였다. 그가 보기에 "유럽에서는 선언이 존재하고 유토피아가 그려져 있지만, 실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면, 뉴욕에서는 선언도 유토피아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실현만이 이루어져 있다. 특히 1920, 30년대의 뉴욕은 거의 혁명적인 실현이 이루어졌다."<sup>30)</sup> 그가 보기에 근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모든 속성들은 맨하탄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도시가 가지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하탄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해서 거기서 채택된 이데올로기들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것은 알도 로시나 콜린 로우가 주로 로마와 같이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에 관심을 집중하여 도시이론을 추출한 것과는 다르고, 또한 발터 벤야민이 19세기의 수도인 파리를 분석한 것과 비교된다. 이런

탐구의 결과를 그는 <광란의 뉴욕(The Delirious New York)>이라는 책을 통해 출판하고, 여기서 그는 대도시의 형성과정을 지배한 이데올로기를 맨하타니즘(Manhattanism)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지만 그는 근대 건축가들처럼 자신의 도시이론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대신에 이미 만들어진 도시 구조 속에 개입하여 거기서 잘못된 관계를 수정하려 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생각은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과 명백한 유사성을 보여 준다. 그것은 맨하탄으로 대변되는 근대의 거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전복된 가치체계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도시계획이론은 선언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인 측면을 가진다. 또한 그는 맨하탄의 발전과정을 소급하여(retroactive) 거기에 내재하는 원칙들을 다시 발견하려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책의 부제목을 '맨하탄을 위한 소급적인 선언문(A Retroactive Manifesto for Manhattan)'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다. 맨하탄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역사주의적 맥락들을 모두 거세한 채, 오직 고고학적인 단편들로 그들을 다시 읽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든 피와 살이 다 거세되고 오직 뼈대만 남은 유골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 3.3 공간으로부터 장소로

소쉬르는 언어가 그 자체의 동일성보다는 차이에 의해 그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도시적 차원으로 이해하자면 바로 절대적이고 선형적인 공간개념으로부터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장소개념로의 이동을 의미하게 된다. 1950년대 이후 건축에서 '장소' 개념의 출현은 단순한 건축적 사건이 아니고, 서구 지성계에서 일어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공간인식에 대한 일대 전환을 의미했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서양에서 공간개념의 역사는 세 단계로 변천해 왔다고 생각한다. 먼저 "장소의 위계와 대조, 그리고 무질서한 섞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세의 공간이다. 여기에는 성(聖)과 속(俗),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와 농촌이 대립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천상의 공간, 하늘, 그리고 지상의 공간이 위계를 가지고 존재한다."<sup>31)</sup> 푸코는 이것을 '국지화된 공

30) Arata Isozaki와의 대담, 21세기 건축의 예언가들, 현대건축사, 250쪽.

31) 이 글은 원래 Centre d'études architecturales (Paris,

간(space of localization)<sup>32)</sup>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갈릴레오에서 시작하여 데카르트와 뉴턴에 이르는 과학혁명을 통해, 중세의 공간은 무한하게 연장될 수 있는 '연장(extension)의 공간'<sup>33)</sup>으로 대체되었다. 여기서는 세계가 동질하고 균일한 중성의 공간으로 간주되었고, 각각의 장소들은 균질한 이 공간 속의 한 곳을 점하게 된다. 서구의 근대문명이 기초하는 공간개념은 바로 이것이고, 근대건축과 도시들 역시 바로 이런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그렇지만 미셸 푸코는 이런 공간개념을 거부하고, 대신 국지화의 공간과 유사한 '배열의 공간'<sup>34)</sup>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동질하고 빈 공간 속에 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질로 충만한, 아우라(aura)가 있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고, 중첩되지 않으면서 위치를 규정하는 관계의 다발로 이루어진 것이다."<sup>35)</sup> 이것이 형태적으로 나타나면, 계열과 망(network)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1950년대 이후 건축가들을 지배한 '장소'개념 역시 이것 생각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다.

여기서 장소는 우리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공간(space)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장소를 '차지(take place)'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6)</sup> 그것은 칸트적 의미에서 선형적인 범주로 이해되기보다는, 실존적으로 체험되는 그 무엇이다. 이런 장소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철학자는 바로 마틴 하이데거이다. 그는 인간이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실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건이나 행위의 세계 속에서 의미와 질서를 표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현존재는 실존하면서 각기 그때마

다 이미 자신에게 알맞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각기 그 때마다 자신의 고유한 장소를 규정하며, 마련된 공간에서부터 그가 만든(차지한) 자리로 되돌아 온다"고 하였다.<sup>37)</sup> 이런 생각은 근대건축에서 나타나는 획일성과 익명성에서 벗어나려는 현대 건축가들에게 매우 유용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하이데거의 장소개념을 건축적으로 발전시킨 노버그-슐츠는, "건축의 실존적 목적은 대상지를 장소로 만드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주어진 환경에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장소의 안정성은 인간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하였다.<sup>38)</sup> 현대건축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장소적 특징을 건축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받아들인다. 건축가 스티븐 홀은 장소 개념이 갖는 그런 의미에 대해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건축은 상황에 의존한다.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건축은 그 장소의 경험과 결합된다. 단순히 대지에 맞도록 짓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의미들을 모아 장소와 결합하면서 물리적, 기능적 한계를 뛰어 넘는다. 대지는 개념상의 구성요소 이상이며, 건축의 물리적이고 형이상학적 기초가 된다."<sup>39)</sup>

언어 담론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현대 도시이론가들이 장소 개념을 정의하면서 의미와 구조를 통합시킨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장소개념과 언어담론이 소통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하나의 장소에 거주한다는 것은 인간과 주어진 환경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인간은 그의 장소를 선택하며, 그리하여 다른 인간과 어떤 친분관계를 맺는다. 인간의 실존은 바로 삶과 장소의 진정한 통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인간은 건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드러내고자 하며, 그것은 주위의 상황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건축가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전체 구조와 연관된 의미들을 읽어내고, 그들의 관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질한 공간 속에 추상적인 형태를 반복해서 채워넣는 근대건축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여기서 왜 장소 개념에서 의미와 구

1967년 3월)에 실렸다가, 다시 L'Architettura (1968년 4월)에 발췌되었다. 이것을 다시 다음의 책에서 영역하였다. Michel Foucault, Of Other Spaces, in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 (ed. by Neil Leach), Routledge, 1997년, 350쪽.

32) 앞의 책.

33) 앞의 책.

34) 앞의 책.

35) 앞의 책

36) Christian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태림출판사, 1985, 36쪽

37)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483쪽.

38) Christian Norberg-Schulz, Genius loci(장소의 혼, 민경호의 옮김), 태림문화사, 1996, 25쪽.

39) Steven Holl, Anchoring, 태림문화사, 1993년, 11쪽.

조,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가 나타낸다. “인간은 자신의 삶-상황을 의미 있는 전체로 가져가기 위해 생각과 형태를 조직하도록 요청받는다.”<sup>40)</sup> 현대 건축가들의 임무는 바로 그런 의미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1970년에 활동하기 시작한 유럽의 건축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케빈 린치의 도시이론과 장소 개념에다가 언어학적인 개념과 결부시켜 유형론(Typology)이라고 불리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여기에는 알도 로시를 비롯하여 비토리오 그레고티(Vittorio Gregotti), 조르지오 그라시(Giorgio Grassi), 구이도 카넬라(Guido Cannella) 등, 우리가 흔히 ‘텐덴자(Tendenza)’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태리 건축가들이 포함되고, 독일의 건축가인 오스발트 웅어스와 룩셈부르크의 건축가인 레온 크리에도 이들의 생각에 동조하였다. 이들은 더 이상 근대건축가들이 제안한 보편적인 도시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한 도시를 더 이상 사회 이념을 실현시키는 장소로도 보지 않았다. 대신 각각의 도시와 건축을 이념과는 상관없이 자율적인 면모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알도 로시가 제안한 ‘특이한 장소(locus solus)’라는 개념은 그것을 잘 나타낸다. 그에 따르면, “도시의 각 부분은 특이한 장소이다. 물론 이런 장소적 특이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지라도, 그런 특이함이 여전히 그 도시를 특징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sup>41)</sup> 이처럼 도시를 각기 특이한 장소들의 집합으로 볼 경우, 그런 장소가 가지는 기억의 흔적들을 어떻게 읽고 드러내느냐와 또 기존에 형성된 도시적 맥락과 어떤 관계를 갖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동질하고 연속적인 근대 도시의 공간적 특징 대신에 이질적이고 복수적인 장소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베르나르 चु미는 이런 복수의 장소 속에 인간의 움직임과 사건의 개념을 집어넣는다. 그것은 유형론자들이 주장하는 형식주의적 생각들이 더 이상 도시와 건축에서 공간과 프로그램의 문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움직임은 공간적으로 담아내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탐구를 행하였다. 그가 보기에 “건축과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래서 매우 불안정하지만, 지난 삼천년 동안 건축 이데올로기는 안정성, 실재성, 확고함 등을 건축적 특징으로 간주해 왔다. 이것은 사회가 건축을 안정화, 제도화, 영속화의 수단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간의 해체를 억제해 왔던 것이다.”<sup>42)</sup> 그렇지만 오늘날 도시와 건축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건축가들이 그것을 하나의 예정된 프로그램으로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근대도시이론에서 제기한 기능과 형태 사이의 견고한 인과관계는 불확실한 것으로 바뀌었다. 현대도시이론에서 해체, 분열, 이점 등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चु미는 이런 불확정성과 비예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사건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끊임없는 움직임을 생성해 내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시키려는 노력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사건을 통해 조직된 도시는 근본적으로 근대 도시이론처럼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이 계속해서 사건과 충돌하도록 하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들이 서로 침투하고 중첩시키고 조합하여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적인 사건들을 새롭게 촉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제안한 이벤트 시티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 3.4 위계적 구성로부터 네트워크적 구성으로

위계적 구성로부터 네트워크적 구성으로의 이동은 20세기 후반의 도시이론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키워드이자, 언어담론이 도시이론에 접목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는 언어의 소통방식과 정확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의 구성요소들을 체계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위계적인 구성방식은 도시

40) Christian Norberg-Schulz, 'Meaning in architecture', in Meaning in Architecture(ed. by Charles Jencks and George Baird), Barrie & Jenkins, 1969년, 229쪽.

41) Aldo Rossi. Architecture of the City, MIT Press, 1982년, 21쪽.

42)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MIT Press, 1996년, 25쪽.

구성요소들의 수직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즉 최상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놓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을 위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건축가들이 제안한 도시이론에서 잘 나타난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적인 구성은 도시의 각 요소들이 상호연결되어 있는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위계적인 구성은, 근대 도시이론이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각 구성요소들을 최소한의 단위로 분절한 다음 그것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을 파악하려 한 환원주의적(reductionism) 태도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다른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그 결합 방식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근대적인 방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복잡계(complex system)를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도시를 환원주의적 태도가 아닌 네트워크적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시각이 대두된 것이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도시는 나무가 아니다(A City is not a Tree)>라는 글에서 이 점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연도시로서, 수많은 세월을 걸쳐 출현한 도시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근대 이후 만들어진 인공도시로서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이 두 개의 도시를 비교해 볼 때, 그가 보기에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하고, 특히 인공도시의 경우 자연도시가 가지는 본질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많은 도시 계획가들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연 도시가 가지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려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연도시가 가지는 내적 구조를 간과하고 피상적인 부분만 모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자연도시에서 나타나는 내적 구조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알렉산더는 도시 구성요소들을 보다 복잡한 체계로 관계 지우는데 두 가지 방법을 구분하였다. 하나는 반격자형 구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형 구조이다.<sup>43)</sup> 이 두 가지 구조는 여러모로 비

교된다. 반격자형 구조는 나무형 구조보다는 훨씬 복잡하지만 보다 유연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20개 요소를 가진 나무형 구조는 단지 19개의 부분 집합만을 갖지만, 반격자형 구조는 백만 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분 집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sup>44)</sup> 또한 나무형 구조는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이어서 의사소통이 주로 수직적인 위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반격자형 구조는 관계가 횡적이어서 훨씬 다양한 의사소통의 경로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알렉산더는 자연도시의 내적 구조가 반격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인공도시는 나무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나무형 구조는 근대 도시이론을 대변한다고 본다. 그 예로 그는 20세기 초의 전원도시부터 1960년대 단계 겐조의 동경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두 9개의 근대적인 도시모형을 예시한다. 먼저 그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전원도시의 예를 든다. 그것은 모도시를 기반으로 작은 마을이나 전원도시들이 마치 나무 가지처럼 매달려 있어서 전형적인 나무형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전원도시를 보다 확대시킨 에버크롬비의 런던 신도시 계획안에서도 잘 나타난다. 에버크롬비는 “이 계획안이 기존의 공동체의 특성을 강조하고, 그들을 분리된 실체로 인식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단위들, 즉 보다 큰 커뮤니티와 보다 작은 근린주구를 나무형으로 결합시켜 놓은 것이 틀림없다<sup>45)</sup>라고 썼다. 이것은 명백히 나무형으로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이어 알렉산더는 근대 도시이론에 의해 세워진 대표적인 신도시인 인도 찬디갈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를 나무형 구조의 예로 들고 있다. 찬디갈의 경우 도시 상부에 위치한 행정센터와 중앙의 상업센터를 연결하는 축이 도시전체를 관통하는 줄기 역할을 나머지 기능들이 거기에 매달린 반면, 브라질리아의 경우 단일한 중심의 간선도로가 도시 전체를 지나가고 여기에 많은 지선들이 매달리게 된다. 이런 구조는 도시를 사람의 신체 기관과 비유한 르 꼬르뷔제의 도시계획이론에서 연유하는데, 그는 도시의 교통의 흐름을 “인간 허파에

43) 여기서 나무형 구조는 하나의 전체에 속하는 임의의 두 개 집합에 대해,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완전히 포함되든, 혹은 그들이 완전히 별개로 분리된 경우에만 성립된다. 이에 비해 반격자형 구조는 서로 겹치는 두 집합들이 하나의 전체에 속하고, 그리고 이 두 집합 모두에 공통된 요소들의 집합 또한 그 전체에 속할 때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된다.

44) 앞의 책

45)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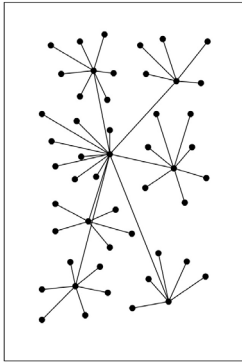


그림 2. 나무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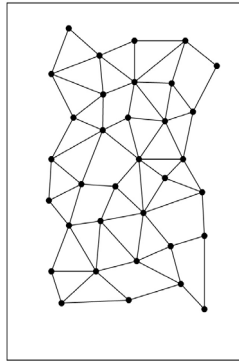


그림 3. 반격자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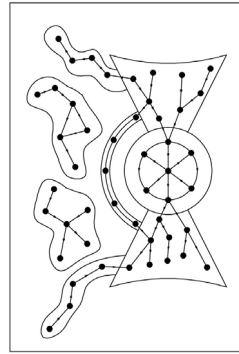


그림 4. 척도없는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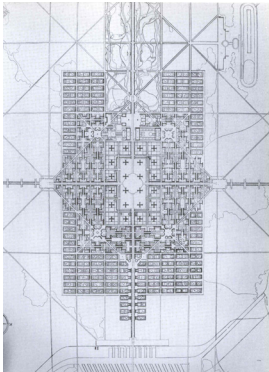


그림 5. 르 꼬르뷔제의 현대도시계획안(1922). 나무형 구조를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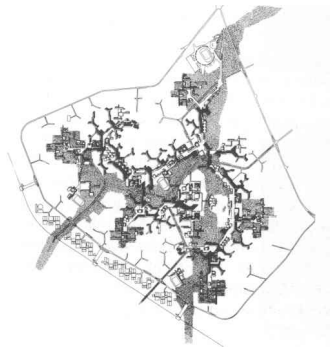


그림 6. 칸디리스-조직-우즈의 툴루즈 계획안(1961). 반격자형 구조가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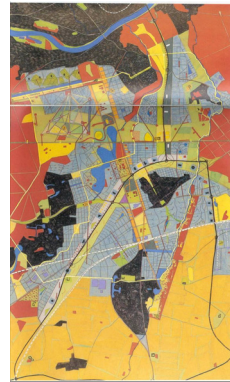


그림 7. 렘 콜하스의 들랭 세나르 계획안 (1989). 척도없는 네트워크를 대변한다.

서 이루어지는 혈관과 기도의 흐름과 연관시키고, 거기서 두 개의 독립된 기능 사이의 관계를 보려 하였다.”<sup>46)</sup> 이런 생각은 명백히 나무형 구조를 대변한다.

알렉산더는 나무형 구조로 된 도시는 너무나 경직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삶의 현실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도시의 매우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도시계획가가 다양한 현상을 단

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구조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토니 가르니에의 <공업도시> 안에서 시작되어서, 1929년 CIAM의 <아테네현장>에서는 조닝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알렉산더는 근대 건축가들이 정립한 조닝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 원칙은 공장과 주거가 뒤섞여서 매우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켰던 20세기 초에는 매우 유효하였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

46) Le Corbusier, Urbanisme, 부록의 그림 10, Champs Flammarion, 1980년.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 그는 격자형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단조로운 나무형 구조를 오버랩을 시키되, 거기서 일정한 구조가 발생하도록 올바른 오버랩을 선택하여 과거 도시에서 나타나는 무질서를 극복하자고 제안한다.<sup>47)</sup> 이런 생각은 그가 ‘패턴 랭귀지’라고 제안한 개념으로 이끌리게 된다. 이것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구분해서 일종의 카다로그처럼 모은 다음, 도시를 계획할 때 관련된 패턴들을 끄집어내서 이들을 상호관련시켜서 일종의 지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패턴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것과 함께 연관되어야만 그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sup>48)</sup> 이런 생각은 1960년대를 풍미했던 구조주의자들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고, 또한 전혀 다른 방향에서 도시이론에 접근한 유럽의 유형론자들과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일치한다.

이런 알렉산더의 시도는 또한 언어 담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그는 수학의 그래프이론과 집합이론에서 도시구조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왔지만, 언어 담론의 구조주의와 수학의 집합론 사이에는 기본적인 사유방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도시이론은 언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근대 도시이론에서 현대 도시이론으로 전환되는 첫 번째 분기점을 형성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알도 로시의 유형론과 콜린 로우의 맥락주의와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렇지만 알렉산더의 생각이 불러일으킨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강한 비판을 받는다. 먼저, “그가 제안한 수많은 패턴 랭귀지들은 기존의 경제적인 관습과 건설과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실제 도시계획을 수행하는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에게 효율적인 디자인 방법을 제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로 연결된 패턴들의 집합은 디자인이 정조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안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계를 부과하면서, 수많은 가능성들을 제거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디자인이 가능하다. 가능성을 보다 좁히는 과정은

실제적인 디자인 방법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다.”<sup>49)</sup> 이런 한계와 함께 그가 제안한 격자형 구조 자체가 너무나 균질하고 정적이어서 현대도시의 역동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비판되었다. 이것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구조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것과 똑같다.

1980년대 이후의 건축가들 가운데 렘 콜하스는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고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도시이론들은 두 가지 점에서 현실과 유리된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근대의 도시사상이 주로 급증하는 도시인구와 이에 따른 대도시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이라면, 지금은 제 3세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멈추고 있어서 근대적인 도시계획이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대건축가들이 제안한 도시이론들과는 다른 것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1960년대 이후 근대 도시이론이 갖고 있는 확일성과 엄격함을 깨트리려는 다양한 제안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들이 실제 도시계획에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가 유형론과 맥락주의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점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맥락주의의 핵심개념은 투사된 이상과 현실적 필요성이 충돌하면서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즉, 역사적 도시에서의 이런 충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맥락주의자들은 400-500년간의 역사를 단기간에 시뮬레이션 해서 그들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려 한다는 것이다.”<sup>50)</sup> 이 점은 유형론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보기에 이런 이론들은 지나치게 역사에 집착하여 20세기 초반의 도시이론이 이룩한 주요 공헌들을 내팽개치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론적으로는 성립되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유토피아를 거부하고 불안전하고 순수하지 않는 경험적 필요성을 받아들이며,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엄밀함과 정확함이 결여된 점도 그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그는 새로

47) Christopher Alexander, 앞의 책

48) Christopher Alexander, A Pattern Language(건축 도시 이론, 한근배 옮김), 태림문화사, 서문.

49) Nikos A. Salingaros, The Structure of Pattern Languages, Architectural Research Quarterly, vol. 4, 2000년.

50) Rem Koolhaas, S,M,L,XL, Monacelli Press, New York, 1995년, 284쪽.

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이론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혼돈이나 불확정성을 구조 속에 포함시켜서 보다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도시이론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명백히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초기 구조주의자들이 가졌던 구조 개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유체계를 제시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알렉산더가 제안한 패턴의 개념이 마치 고속도로 지도처럼 균질한 노드들이 서로 링크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바라본 반면, 현실 속에서의 도시구조는 이와는 달리, 매우 높은 접속빈도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허브를 비롯하여, 접속빈도가 매우 희박한 사이트도 가지고 있으며, 또 섬처럼 고립된 부부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그것은 매우 비균질적이면서도 척도가 없는(scale-free) 네트워크인 것이다.<sup>51)</sup> 그것은 각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기들의 연결 네트워크를 그려보면 쉽게 가시화된다. 램 콜하스가 제안한 도시개념은 바로 이것과 정확하게 오버랩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생각한 구조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1980년대 이후 건축가들이 생각한 도시모형이기도 했다.

램 콜하스가 보기에 현대 도시와 건축이 비균질적이고 척도 없는 네트워크로 이해되는 것은, 그들이 엄청 크다는(bigness)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하나의 건물이 일정 임계 매스를 초과할 경우, 그것은 거대 건물이 된다. 그런 매스는 더 이상 한 건축가에 의해 조절될 수 없게 되고, 각 부분들은 더 이상 자율성을 가지기가 불가능해 진다. 이 경우 구성, 스케일, 비례, 디테일과 같은 고전적인 건축원칙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건물 코어에서 바깥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파사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없고, 이에 따라 건물 내부와 외부는 완전히 따로 놀게 된다. 내부는 너무나 불확실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반면, 외부는 너무나 확실한 형태로 도시 속에 놓여 있게 된다. 거대 건물은 모든 선악을 넘어서 존재하며, 거대함은 더 이상 도시조직의 일부가 될 수 없게 된다.”<sup>52)</sup> 이 때문에 현대도시는 더 이상 분명한

경계나 영토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또한 바로 거기에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램 콜하스는 현대 대도시가 가지는 이런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에서 통제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함으로써 혼돈마저도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불확정성과 혼돈을 허용할 경우 도시의 전체구조는 부분의 구조가 같을 필요가 없다. 알도 로시에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에 이르기까지 1960-70년대의 도시이론은 도시의 전체구조를 부분과 동일시하였고, 거기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콜하스는 도시계획상의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가 상대적인 중성화 전략(neutralité relative)이고, 두 번째가 도시 프로그램에 불확실성(instabilité programmatique)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혼돈과 무(néant)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려는 생각이 깊이 깔려 있다. 램 콜하스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도시의 역사를 그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매우 단순화된 거대 패러다임으로 변형시킨다. 우리는 이것을 반-맥락화 혹은 맥락으로부터의 해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는 이것을 통해 건축의 중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 때까지 중시해 온 실재, 물리적 실체, 역사, 맥락과 같은 개념들로부터 도시이론이 이탈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도시계획가들은 도시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이들을 근거로 삼지만, 비극적이게도 그것은 단순한 기하학적 의미만을 내포할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는 테리다에 따르면 전체적(Whole)이지 않고,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실재적(Real)이지 않고, 비블리오에 따르면 바로 거기(There)에 있지 않다. 도시이론들은 이런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이런 점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sup>53)</sup> 램 콜하스는 과거 도시이론이 도시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도시가 기반하는 확실한 근거들에 의존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거대 도시에서 그런 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도시이론은 불확실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새로운 도시론은 더 이상 명확한 형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정들을 주위 담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것

51) Albert-Laszlo Barabasi, R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링크, 강병남, 김기훈 옮김), 동아시야,

52) Rem Koolhaas, S,M,L,XL, 앞의 책, 504 쪽.

53) 앞의 책, 967쪽.

은 더 이상 경계를 꼼꼼하게 위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부인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는 실체(entity)가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혼성(hybrid)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것은 계속되는 공간의 재분배, 단절, 다양화, 밀집화를 위해 하부 구조를 조절하는 것이다.”<sup>54)</sup>

그렇다면 철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닌, 현실적으로 실제 도시와 건물을 설계해야 하는 건축가, 혹은 도시계획가가 어떻게 혼돈과 불확정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는 담론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만들어진 담론을 실제로 옮기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런 생각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을 작동시키는 독창적인 생각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램 콜하스는 라 빌레트 공원을 설계하면서 그 단초를 드러낸다. 근대건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콜하스는 근대 건축가들이 도시계획에서 사용한 그리드(grid) 대신에 밴드(band)라는 요소를 사용하게 된다. 이들 밴드는 중성적인 그리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건축가가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그리드와는 달리 그들은 임의로 가정할 수 있고, 또 대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밴드를 사용하면서 가정한 것은, 프로그램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들 사이의 경계를 최대한의 길이로 하여 여러 개의 밴드들을 만들어서 계획을 진행시키다가, 최종적으로 각각의 밴드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들이 상호침투하면서 가능한 많은 프로그램적인 변종을 발생시키고자 하였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콜하스가 원하는 바는 바로 ‘프로그램적인 불확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 빌레트 공원 현상설계에서 그는 이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 미리 필요한 요소들을 임시적으로 열거할 수밖에 없다. 만일 임시로 설정한 프로그램들이 대폭 바뀔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공원이 확장되면서 재고되고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정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그것은 디자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건축적 특수성과 프로그램적인 불확정성을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우리들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디자인이기보다는 하나의 전략으로 인식한다.

프로그램의 불확정성은 초기의 가정을 해치지 않고서도 모든 형태의 교환과 변화 그리고 수정과 대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sup>55)</sup>

####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 도시이론과 현대 도시이론의 비교를 통해 1960년대를 전후로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주로 네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이 시기동안 도시이론이 기능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바뀌었다. 근대 도시이론의 경우 도시는 철저히 기능적인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나, 현대 도시이론의 경우 도시의 이미지, 가시성, 형태론 등이 더욱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현대 도시의 주요 담론이 역사주의에서 고고학으로 바뀌었다. 현대 도시이론가들은 근대 도시이론에서 나타나는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허구라는 점을 지적하고, 콜라주 시티, 유비적인 도시 등을 제안하였고, 이들은 모두 고고학적인 사유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세 번째는 동질하고 균일한 공간으로부터 특이한 장소로 강조점이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복수적인 장소성과 도시적 맥락이 도시이론에 있어서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방법이 위계적 구성에서 네트워킹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도시의 구성이 기능과 효율성의 기준에 의해 위계 지워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르 꼬르뷔제의 도시계획안과 램 콜하스의 도시계획안을 비교해 보면 명확히 나타난다.

이상에서 1960년대를 기준으로 도시이론 상에서 일어난 네 가지 변화를 요약해 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언어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현대 언어담론이 가지는 형식성, 통시성, 구조의존성, 그리고 관계성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어담론과 현대 도시이론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런 점에서 건축과 도시 분야 역시 현대의 지적 사유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4) 앞의 책, 969쪽.

55) Jacques Lacan, OMA-Rem Koolhaas, Electa-Moniteur, 57쪽.

<참고문헌>

1. Christopher Alexander, A City is not a Tree, in Architectural Forum, 122, no.2.
2. Christopher Alexander, A Pattern Language (건축 도시 형태론, 한근배 옮김), 태림문화사
3. Micha Bandini, Aldo Rossi, in AA Annual, 1981년.
4. Albert-Laszlo Barabasi, R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링크, 강병남, 김기훈 옮김), 동아시아
5. Alan Colquhoun, Typology and Design Method, in Meaning in Architecture(edit. by Charles Jencks and George Baird, Barries & Jenkins).
6. Peter Eisenman, The End of The Classical : The End of the Beginning, The End of the End, in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ed. by K. Michael Hays), Columbia Books of Architecture, 1998년,
7. Rem Koolhaas, Delirious New York, 010 Publishers, 1978년
8. Rem Koolhaas, S,M,L,XL, Monacelli Press, New York, 1995년
9. Jacques Lacan, OMA-Rem Koolhaas, Electa-Moniteur.
10.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년
11. Aldo Rossi, Architecture of the City, MIT Press, 1982년
12. Colin Rowe, Fred Koetter, Collage City, MIT Press
13.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MIT Press, 1996년,
14. Le Corbusier, Urbanisme, Champs Flammarion, 1980년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ntemporary Urban Theories and Discourse of Language

Jung, Inha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After 1960s, a radical change was taken place in the modern urban theories which were developed by many architects and planners like Ebenezer Howard, Tony Garnier, Le Corbusier, Ludwig Hiberseimer, and Patrick Abercrombie. Many contemporary architects like Kevin Lynch, Aldo Rossi, Christopher Alexander, Colin Rowe, Rem Koolhaas, and Bernard Tschumi have a view that modern urban theories lost their abilities to organize and control new realities so that new urban theories was needed in order to cope with urban problems in the 1960s. In this study, we are to examine contemporary urban theories in comparison with modern urban theories and to clarify the role of discourse of language in its emergence. In consequence we can detect four main themes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from modern urban theories to contemporary urban theories : from functionalism to formalism, from historicism to archeology, from space to placeness, and from hierarchical organization to network. And we can prove that such themes basically depend on the discourse of language.

---

Keywords : contemporary urban theories, modern urban theories, discourse of language

---